

# 산책하듯...청각으로 작품 감상하다

EBS '뮤지엄에이로그' 진행자 이청아 드영미술관 '청년작가 4인전' 해설 2020 미술주간 공모 선정 진행



드영미술관에서 열리는 청년작가 4인전은 '이청아의 뮤지엄에이로그-상상하는 미술관 ASMR'에 선 정돼 대체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몰랐고, 이 다음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도 몰랐던 스무살 여자 아이였다." 소설가 전경린의 '검은 실탕이 녹는 동안'의 한 구절이 오디오로 흘러나온다. 이어지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무등산 자락 어느 미술관 앞에서 열리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더해진다.

EBS '이청아의 뮤지엄에이로그'의 진행자 배우 이청아의 목소리다. 그녀가 방문한 곳은 광주 지역 젊은 작가 4인전이 열리고 있는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0 미술주간'은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축제로 '당신의 삶이 예술'이라는 주제 아래 일상 속 미술을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특징이다. 올해는 특히 온라인프로그램을 강화해 더 많은 관람객을 만나고 있는데 'VR 전시', 이청아의 뮤지엄에이로그와 연계한 '상상하는 미술관 ASMR' 등이 대표적으로 드영미술관이 공모에 선정돼 참여하게 됐다.

'상상하는 미술관 ASMR'은 제공되는 오디오 파일을 통해 오직 청각으로만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의 콘텐츠다. 전시를 보러가서 함께 산책하듯 들어도 좋고, 전시에 가지 못하더라도 전시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잠시 눈을 감고 고요한 전시실의 어디쯤을 걷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특별



배우 이청아

한 휴식과 영감을 받을 수 있다.

불안정한 인생이지만 삶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을 다양한 시각작품을 통해 전달하는 청년작가 초대전 '불안정한 에너지'에는 고마음·김다인·황수빈·정정하 등 4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지금 저는 네명의 청년 작가들이 보여주는 작품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왼쪽 벽을 따라 작고도 거대한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언더가를 담아낸 황수빈 작가의 작품입니다. 짙은 어둠

사이로 어디론지 날아가는 별무리들을 보면서 그 별의 움직임이 우리 몸을 떠도는 세포의 모습처럼도 보입니다."

이청아의 목소리를 듣다보면 전시장의 모습이 조금은 그려지는 듯하다. 낡은 건물이 부서지고 새로운 준비를 하는 공사현장을 호기심 어린 시각으로 바라보는 고마음 작가의 작품과 텔레비전을 오브제로 차용해 화면 속에 사람의 초상을 그려넣어 위트있게 표현하는 김다인 작가의 작품도 색다른 시선으로 만날 수 있다.

'VR 전시'와 '상상하는 미술관 ASMR'은 드영미술관과 미술주간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미술관 전시는 11일까지 열리며 'VR 전시'와 '미술관 ASMR'은 전시가 막을 내려도 감상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사람과 자연 교감하는 자연친화적 감정

고창 출신 류정식 시인 '틈새' 펴내

고창 출신 류정식 시인이 세 번째 시집 '틈새' (광남디자인)를 펴냈다.

모두 90여 편이 실린 작품집은 사람과 자연이 교감하는 자연친화적 감성을 담고 있다. 시인은 발문에서 "어린 시절 별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미완의 꿈이었다. 늦은 밤 밝은 빛을 몰고 오는 별과 달은 기다림이었고 그리움이자 희망이었다"고 말한다. 이번 시집이 지향하는 바가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보여준다.

"하얀 목련 지던 날/ 가련한 여심 울고 간 뒤/ 두 동실 구름 위를 떠돌다/ 신난의 웃기 잡고 내려온 / 선운사 이야기를 아시나요. (중략) // 저만큼 오려나? / 꽃잎 하나 눈썹 위에 걸터앉아/ 매번 당신을 기다리다 만나고/ 어쩌다 이별이 갈라놓아/ 우릴 눈물짓게 하여도/ 꽃피 내리는 도술천 따라/ 우리는 걷고 또 걸을 거예요." '선운사 가는 길'은 시인의 섬세한 감정과 통찰



력, 간결한 시어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사물을 바라보는 화자의 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함이 깃들었다. 고전적인 작품 표상에 가까운 시풍은 깊이와 단순함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손광은 시인은 "류정식 시인의 시는 마치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드가 시는 강렬한 감정의 자연스러운 유로라고 말하듯 류 시인의 서정시에서 정서 또는 감정을 강조하는 것은 낭만주의적 인식과 밀접한 상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한다. 한편 류 시인은 97년 계간 '문화와 비평'으로 등단했으며 지금까지 '그리움을 안고 떠도는 별', '그리움이 물든 내빈자리' 등을 펴냈다. 시맥문화재단 회장을 역임했으며 아시아 서적 신인문학상, 한국문학진신 이달의 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박물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 '마음으로 느끼는...' 발간

2000년 전 광주 신장동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 옛 사람들은 어떤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책 속의 문화재를 손끝으로 만지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점자도서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박물관)은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도서 '마음으로 느끼는 우리 문화'(사진)를 펴냈다.

이번 점자도서에는 어린이박물관 전시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광주 신장동, 도자기, 신안해저문화재 관련 이야기가 수록됐다. 특히 문화재 설명은 명칭이나 시대, 모양 등 단순한 전달이 아닌 흥미로운 이야기와 생각을 확장할 수 있게 표현과 질문으로 구성했다. 문화재 설명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QR코드가 들어 있으며 박물관 누리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점자도서는 전국 장애인도서관, 광주전남 장애인복지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광주특수학교 등 650여 곳에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며 희망계승 교육프로그램에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점자구현 컴퓨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구인 디지털자료를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제공해 점자도서가 없어도 우리 문화를 느끼고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판소리·탈춤...국악, 현장에서 관객 만나다

광주국악상설공연·국립남도국악원 등 객석 거리두기 좌석제로 대면공연 재개

그동안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 관객과 만나왔던 국악공연들이 대면공연을 재개하고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매일(일·월요일 휴관)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거리두기 지정좌석제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광주시립예술단(장극단·국악관현악단)과 지역 민간예술단체 10개팀이 출연해 다양하고 흥겨운 국악무대를 선사한다.

9일 무대는 향신주소연판소리보존회가 '토리·경기와 남도'로 꾸미며, 10일에는 예악이 '민요로 떠나는 팔도유랑기'를 공연한다.

16일에는 광주시립창극단이 '입춤소'를 무대에 올리며, 판소리 '수궁가'의 내용을 각색한 단막창극 '나 토끼 아니오' 판극과 '경고구' 등 흥겨운 국악무대를 보여준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23일 '10월의 어느 날'이라는 주제로 관현악 '바람과 함께 살자이다', '프린스 오브 제트' 등 아름다운 국악 선율을 전달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매주 목·토요일에 열리는 공연은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각 나오는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문의 062-613-8379. 국립남도국악원은 '고성오광대',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탈춤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금요국악감으로 관객들을 찾아가겠다.



광주국악상설공연과 국립남도국악원 금요국악공감이 대면공연을 재개하고 다양한 국악 무대를 선보인다. 사진은 국악상설공연 공연 모습. <광주문화예술회관 제공>

국악원은 9일 오후 7시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천하제일탈공작소를 초청해 무대를 꾸민다.

천하제일탈공작소는 이날 국가무형문화재 제73호 가산오광대 6과장에 등장하는 '할미춤'을 시작으로 '도살풀이춤', 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제1과장 '문동복춤', '한량무', 국가무형문화

재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이매미당' 등을 선보인다. 2006년 창단한 천하제일탈공작소는 전통탈춤의 원리와 정신을 기반으로 관객과 함께 어울리는 공연을 선보이는 예술단체이다.

공연 시작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선착순 160명 무료관람. 문의 061-540-403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21일까지 재공모

광주시는 광주문화재단 제4대 대표이사 재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재공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공모는 별도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면접심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시의회 인사청문, 시장의 임명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응시 자격기준은 ▲문화재단 사업 및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능력, 기금확보 능력 ▲시민의 문화활동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 능력 ▲문화재단 설립 취지와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현실화시킬 능력 ▲정부, 의회, 문화예술기관·단체 등과

소통 능력 중 하나 이상의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학력이나 연령 제한은 없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 공개 모집했으나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결과 후보자를 재공모하기로 했다.

희망자는 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제출서류를 내려 받아 오는 21일(공휴일 제외)까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 합격자는 오는 28일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면접심사는 11월 6일로 예정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h3>평화의자소파</h3> <p>북구 운암동 794-13(대차초등학교 옆) 가정용, 영업용 불박이, 톱소파, 압소용제작 친결이 리폼전문 각종 소파 친결이 수리 및 제작 전문공방 ☎ 062)371-2110, 010-9404-3571</p>	<h3>필스제화</h3>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골) 구두수선 남화·여화화 굵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공택 ☎ 010-4755-9294</p>	<h3>법무사 이영석사무소</h3> <p>동구 방실로 16-1(지산동) 부동산등기·매매설계, 상속, 증여등상업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 행사,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타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p>	<h3>하나부동산사무소</h3> <p>동구 계림동 254-4번지 주택·상가·토지·공장부지·임야 전문 각종 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 부문 ☎ 062)233-5155, 010-3615-5155</p>
<h3>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h3>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h3>남도철학원</h3> <p>북구 천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태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h3>보광세탁소</h3> <p>동구 지산1동 동명로 73-2(구 농장다리앞) 각종 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 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p>	<h3>응추해신삼계탕</h3> <p>북구 저불로 93(용봉동 3차현대아파트 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철·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p>
<h3>동양철학원</h3>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태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p>	<h3>명품옷수선전문점</h3> <p>나주시 중앙로 63(나주교회건너편) 남녀의류수선, 각종명품옷수선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친철 신용 분위 ☎ 010-2474-1457</p>	<h3>인철(仁喆)익스프레스</h3>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h3>대연건설</h3> <p>동구 계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건설업·설비·토목·공장·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p>
<h3>고전방</h3>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h3>약초당건강원</h3> <p>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동) 인삼·별곡·홍삼·생약초제품 봉어즙·장어즙 달걀즙·취즙·포도즙 각종 고법니다. ☎ 062)224-9559, 010-3617-9779</p>	<h3>신신예술의집</h3>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h3>새서림 떡방앗간</h3> <p>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정문 참기름, 고추방아, 떡주문일체 ☎ 062)526-4629, 010-5474-4629</p>
<h3>매산철거·삼보소개소</h3> <p>북구 자산로 32 (신안동) 건물상가·집수리, 모래운반 폐기물처리, 고철 파지, 스텐 특수이장, 조직, 방수, 철근, 콘크리트 페인트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잡·인부알선 ☎ 062)528-7005-6, 010-3625-2786</p>	<h3>머리해요(미용실)</h3> <p>북구 용봉동 현대아파트 1차 앞 개업할인 이벤트 컷트 8,000원 염색 20,000원 펌 25,000원 코리너 50,000원 셋팅 50,000원 매직 50,000원 ☎ 062)511-2337, 010-6886-3171</p>	<h3>초대화랑</h3> <p>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h3>박당화랑</h3>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대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